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평창 열다

2017년 9월 1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17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9. 15.(금)	담당부서	지역투자과
담당과장	정경록 과장(044-203-4420)	담 당 자	박만희 사무관(044-203-4423)

산업부,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자리 1천 8백여 개 창출

- 36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623억 원 지원, 1조 1천억 원의 지방투자 유도 -

- 2017년도 3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(9.14~15) -

□ **산업부통상자원부**는 2017년도 3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(9.14~15), 12개 지자체 소재 **36개 기업**에 **총 623억 원**의 **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**하기로 결정했다.

○ 투자유형별로는 **지방 신증설 투자가 73%**로 다수를 차지한다.

* 보조금 유형별 심의결과 : (지방신증설) 27개사/457억원, (지방이전) 3/102, (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) 3/27, (개성공단) 3/37

○ 3분기 보조금 신청은 지난 분기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출 증가, 소비 회복 등 **국내경기의 견실한 개선**에 따라 **기업투자가 증가**한 추세로 분석됐다.

* ('16.3분기)12개사/135억원, ('16.4분기)30/494, ('17.1분기)19/253, ('17.2분기)27/266

- 지역별로는 강원의 경우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('17.11)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기업 이전 및 신설 수요가 반영되었고,

- 충북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1·2차 협력업체 투자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을 반영했다.

* (강원)5개사/196억원, (충북)6/159, (부산)3/53, (전북)5/51, (전남)4/37, (충남)4/33, (경기)2/32, (울산)1/23, (대구)2/17, (경북)2/12, (제주)1/8, (경남)1/0.7

○ 한편, 식품 관련 조합 등 사회적 경제공동체의 신청도 늘어나고 있어, 깨끗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
□ 이번 지원을 통해 **향후 4년간 총 1조 1천여 억 원의 지방투자와 1천 8백여 명** 규모의 **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진다.**

○ **충북**은 6개 기업 **6천7백여 억 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와 7백여 명의 일자리**가, **강원**은 1개 기업의 지방이전을 포함하여 총 5개 기업 **1천 3백여 억 원의 투자와 2백여 명의 일자리**가 창출될 전망이다.

□ **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** ▲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▲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▲국내 복귀 ▲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 ▲조선기자재 업체 업종전환을 위해 투자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에서 설비는 최대 24%, 입지는 최대 40%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.

○ 지난 '04년부터 '17년 상반기까지 총 **1,029개 기업**에 **1조 182억 원의 보조금**(국비기준)이 지원되어 **총 17조 7천억 원의 지방투자**와 **5만 2천여 명의 신규 지역일자리를 창출**한 것으로 보인다.

○ 이는 **1억원 지원 당** 기업으로부터 **17억 여원의 지방투자**를 이끌어내고 **5명의 일자리 창출**을 유도한 것이다.

□ 산업부 원동진 산업정책관은 "이번 지방투자로 인해 **1천 8백 명**이 넘는 **신규일자리가 창출**되는 등 **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된다."라고 강조하며,

○ **산업부**는 "앞으로 **고용효과**에 따라 **투자인센티브 지원을 강화**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등 **지역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최우선 지원**해 나갈 계획이다."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과 박만희 사무관(☎ 02-2110-44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요**

□ 제도 개요

○ **(추진경위) 균특법** 제정과 함께 **지방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**를 위해 '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

- 지자체 및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 신·증설 투자('11), 유턴기업('12), 개성공단 입주기업('14) 등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

○ **(지원내용) 지방투자기업의 입지·설비투자**에 대해 지역별·기업규모별로 **투자액의 일정비율**에 해당하는 **보조금을 차등 지원**

○ **(지원절차)**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는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,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

* 모든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자동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(MOU 체결)에 대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별지급

<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>

지원비율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매칭비율 (국비:지방비)
일반지역	- (설비) 8%	(입지) 10% (설비) 11%	(입지) 30% (설비) 14%	65 : 35
수도권 인접지역	- (설비) 6%	- (설비) 8%	(입지) 9% (설비) 11%	45 : 55
지원우대 지역	- (설비) 11%	(입지) 20% (설비) 19%	(입지) 40% (설비) 24%	75 : 25

□ 주요 성과

○ '04~'17년 상반기까지 **1,029개 기업**에 **1조 182억원**을 지원, **지방투자 17조 6,607억원** 및 **일자리 51,774개 창출** 유발

- 기업들은 동 사업에 대하여 **만족도가 높고**(약 90% 만족, '16년), 정부의 투자 촉진책 중 **가장 실효성 높은 수단**으로 인식

* 지방투자 지원제도 효과조사('14년, 산업연구원) :
지방투자촉진보조금(80.4%) > 세제감면(13.6%) > 금융지원(3.9%) > 저리대출(1.5%)